

특정부서 예산 해마다 과다 계상

대구시 기획관리실 불용액 적정수준 3~6배

시의회 보고서

대구시 특정부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도 관행적으로 턱없이 과다 계상돼 온 것으로 드러나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.

대구시 기획관리실의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은 바람에 불용액이 적정수준(10%내외)의 3~6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

예산 편성시부터 감액 계상을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.

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(위원장 이재술, 전문위원 이상현)에 따르면 과목별로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.

과목별로는 지난해 기획행정의 민간경상보조금(예산총액 450만원)이 33.3%의 불용액을, 서울사무소 인건비(2억8천815만원) 30.6%, 예산운영의 여비(2

억551만원) 및 일반운영비(1억3천771만원)가 30~34.9%, 세정관리일반운영비 31.7% 등이 30% 이상 불용액을 남겼다.

특히 서울사무소의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(2억3천123만원)의 62.7%를 불용처리 했으며 공기업 관리 여비는 60.3%, 세정관리 기타보상금은 57.1%,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는 43.9%를 쓰지 못하고 남겼다.

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5년 결산 감사에서도 나타났다.

당시 서울사무소의 일반운영

비 2억6천900만원중 30%,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2억1천100만원 가운데 40.7%, 예산운영 여비 9천300만원 가운데 35%, 세정관리 기타보상금 200만원 중에서 50%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.

대구시의회 전성배의원은 “매년 30%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으로,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행위”라며 시정을 촉구했다.

박무환기자 pmang@kyongbuk.co.kr